

대장내시경 검사 안내문

- 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하며 식이요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으니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⚠ 용종 절제 시술 시 술, 사우나, 회식, 여행, 운동(골프), 출장이 일주일간 불가능하며, 식사는 2일간 죽만 드실 수 있으므로 일정을 꼭 일주일 후로 변경하십시오.

+ 검사 전날 아침, 점심식사 : 흰죽 이후 금식입니다.

- * 고혈압과 강심제(디콕신), 항경련제는 검사 당일 아침 일찍 물 한컵과 함께 꼭 복용하십시오.
(대장약 복용 후, 용변을 보고 마지막에)
- * 약을 다 드시지 못하거나 식이요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, 잔변이 남아있어 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꼭 지켜주셔야 하며, 재검 시 본인 부담입니다.
- * 아스피린, 항응고제, 혈전용해제, 와파린(쿠마딘), 티클로피딘, 클로피도그렐, 디피리다몰, 프레탈 등을 복용하시는 경우 꼭 주치의와 상의 후 5~7일 전 복용을 중지하십시오.
- * 뇌질환, 혈전증, 심장질환, 신부전증, 당뇨, 간 질환, 폐 질환, 호흡기 질환, 녹내장, 전립선비대증,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, 최근 3개월 이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분은 반드시 주치의에게 확인 후 검사여부를 결정하십시오.(소견서 지참)
- * 당뇨치료제(인슐린주사 또는 경구약물)는 금식하는 동안 저혈당 방지를 위해 중지하고 저혈당 증세가 있으면 설탕물을 드십시오.
- * 대장내시경 하제를 복용할 때 심장, 폐질환, 호흡기질환 또는 신장 문제가 있거나 이뇨제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(NSAIDs)를 복용하시는 경우, 체액 상실(탈수)과 혈중 염(전해질)의 변화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검사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

+ 검사 2~3일 전부터 주의해야 할 음식

씨 있는 과일이나 깨, 버섯은 먹지 않습니다.	 키위	 딸기	 수박	 참외	 포도
	 오렌지/귤	 파	 버섯류	 깨	 옥수수
나물류, 견과류, 옥수수, 콩류, 야채류, 해조류, 풋고추, 김치는 먹지 않습니다.	 잡곡/흑미밥	 현미밥	 콩나물	 김치	 각두기
	 김	 다시마	 미역	 양배추/샐러드	 시금치
계란, 두부, 생선 등은 드셔도 괜찮습니다.	 흰쌀밥	 계란	 닭고기	 두부	 생선
	 햄				

검사당일 주의사항

- 악세서리 착용은 금하시기 바라며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(용종제거시 감전 위험이 있음)
- 수면내시경 후, 자가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중요한 계약이나 운동, 기계를 다루는 일은 하지마십시오.

+ 검사 전날 아침, 점심식사 : 흰죽+간장 이후 금식 (*저녁식사 금식) 물만 드십시오.

검사전날 아침, 점심식사 흰죽만 드시고, 그 후 저혈당 및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이나 이온음료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. (단, 저녁 금식)

* 점심식사는 1시 이전에 끝내시고 그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.



★반찬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.

+ 수클리어산 복용법

※ 대장내시경 하제를 드시면 약 2~3시간 이내에 변이 나오기 시작하고, 점차 묽은 변으로 바뀌게 됩니다.

※ 원활한 장운동을 위해서 수분섭취(생수)와 가벼운 걷기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

수클리어산 1포를 동봉된 용기에 넣고 적당량의 물을 넣어 흔들어 녹입니다.



이후, 표시선 (500ml)까지 물을 채워 잘 흔들어 섞습니다.



혼합된 용액을 천천히 나누어 모두 마십니다.



표시선(500ml)까지 물을 채워 두 차례 추가로 마십니다.

- 1 대장내시경 검사 전날 저녁, 조제한 수클리어산 용액을 천천히 나누어 모두 마십니다. 이후, 추가로 물 500mL를 두 차례 마십니다. (1~2시간 일찍 시작해도 됩니다.)
- 2 검사 당일 새벽, 전날 저녁과 동일하게 복용합니다. 추가로 엔도콜 2포를 복용합니다.
- 3 고혈압약, 항경련제, 강심제를 드시는 분은 대장약 모두 복용 후, 엔도콜 드시고 용변을 본 후, 마지막에 물 한 컵과 함께 **꼭 복용**하고 오십시오.

1차

검사 전날
저녁
7시 ~ 9시
(1~2시간 일찍 시작해도 됨)



2차

검사 당일
새벽
4시 ~ 5시
(7시 첫 예약자는 30분 일찍 시작)



대장내시경 검사 전 자가진단 (변 색깔을 비교해보세요)

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
장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
매우 중요합니다.



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2011;106:875-883